

韓國農村醫學會誌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분류 및 연구동향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¹⁾,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²⁾,
광주시 서구 보건소³⁾,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⁴⁾
위유미¹⁾, 김석일^{2)*}, 박 향³⁾, 류소연⁴⁾, 박 종⁴⁾, 김기순⁴⁾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and Research Trends of Articles in The Korean Journal of Rural Medicine

You-Mee Wee¹⁾, Suk-Il Kim^{2)*}, Hyang Park³⁾, So-Yeon Ryu⁴⁾, Jong Park⁴⁾, Ki-Soon Kim⁴⁾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and Health¹⁾, Department of Parasitology²⁾,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 Kwangju City Seo-Gu Health Center³⁾;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⁴⁾*

= ABSTRACT =

Classification and research trends were studied to analyze a total of 240 original articles that have been published in 34 volumes of The Korean Journal of Rural Medicine from 1976 to 1999.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 total of 337 articles were published. Among them, 240(71.2%) articles were classified as original articles. This number has been increasing significantly over the years as the number of the articles was 13 in the 1970s, 73 in the 1980s, and 154 in the 1990s.
2. There were 10 authors in the original articles and 55(22.9%) of them were written by 3 of them. There were five research institutions involved in the articles, and 106(44.2%) of the articles were done by one research group.
3. In the original articles, 24(10.0%) were noted to be done using research funds, and only 6(2.5%) were written in English.
4. In the view of the research styles of the original articles, 115(47.9%) used analytical study, 92(38.3%) used technical study, 21(9.2%) used experimental study, and 6(2.5%) used case reports. In the 1970s, 13(100.0%) articles used technical study, and in the 1980s, 47(64.4%) used technical studies and 19(26.0%) used analytical studies. However, in the 1990s, 96(62.8%) articles used analytical studies and 32(20.9%) used technical studies. The statistical methods most commonly used in the articles were technical statistics, the χ^2 -test, and the t-test respectively.
5. On the classification into three different research fields, 105(43.8%) articles were classified as health management, 96(40.0%) as disease epidemiology, and 39(16.3%) as

* 교신저자(E-mail : sikim@mail.chosun.ac.kr)

rural environment and rural occupational disorders. In the 1970s, 12(92.3%) of the articles were on disease epidemiology and 1(7.7%) on health management were published. In the 1980s, 33(45.2%) articles on disease epidemiology, 29(39.7%) on health control, and 11(15.1%) on rural environment and rural occupational disorders were recorded. In the 1990s, however, 75(48.7%) articles were on health control, 51(33.1%) on disease control, and 28(18.2%) on the rural environment and rural occupational disorders.

6. According to the research subjects in each research field, the 39 articles in rural environment and rural occupational disorders were composed of 8(20.5%) articles on pesticide intoxication, 7(17.9%) on farmer's diseases, 7(17.9%) on vinyl-house diseases, and 6(15.4%) on accidents. From a total of 96 articles in disease epidemiology 56(58.3%) articles were on parasites, 16(16.7%) on non-infectious diseases, 12(12.5) on infectious diseases. From 105 articles in health control 25(23.8%) articles were on medical care utilization patterns, 18(17.1%) on th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nd 13(12.4%) on maternal and child health. In the analysis of the 10 most prevalent subjects dealt in the above articles, 6(46.2%) articles were on parasites and 4(30.8%) on non-infectious diseases were recorded in the 1970s. In the 1980s, 28(38.4%) were on parasites, 9(12.3%) on the health care system, 7(9.6%) on medical care utilization patterns, 5(6.8%) on maternal and child health, and 4(5.5%) were on pesticide intoxication. In the 1990s, 22(14.3%) articles were on parasites, 18(11.7%) on medical care utilization patterns, 16(10.4%) on senile health, 14(9.1%) on the health care system, 10(6.5%) on infectious diseases, and 10(6.5%) were on non-infectious diseases.

In conclusion, the research activity on rural health has been strengthened in this country because the original articles in The Korean Journal of Rural Medicine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past 24 years. In the 1970s and 1980s, research on disease epidemiology was most prevalent, but in the 1990s papers on health care were most popular. In addition, the articles on parasites were most frequently published in the 1970s, 1980s, and 1990s, showing that parasitic problem was the main theme in those eras. However, in the 1990s, it was evident that the articles on parasites were decreasing and articles on the subject of medical care utilization patterns and senile health increased. Hereafter it was expected that research on health care would be more common in rural health in Korea.

KEY WORDS : The Korean Journal of Rural Medicine, Rural medicine, Article, Classification, Research trend

서론

한국농촌의학회지는 사단법인 한국농촌의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잡지이다. 한국농촌의학회지는 1976년 9월30일부로 창간호가 발행된

이후 1989년까지 매년 1회 발간되다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2회 발간되어 1999년말 까지 24년동안 총34회 발간되었다.

한국농촌의학회는 1973년 10월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농촌의학

회 아시아부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 농촌의학에 관심을 가진 한국대표가 참석하여 아시아 부회의 이사 1명이 한국에 배정되어 정해식 박사가 선임되었고 1974년 9월에 농촌의학회보 제1호가 발간된 후 1975년 2월24일 국제농촌의학회 아시아부회 한국지부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초대회장 정해식, 부회장 조운해, 임한종이 취임함으로써 조직이 탄생되었다(한국농촌의학회지, 1976). 그 후 1978년 11월17일 사단법인 한국농촌보건회로 보건사회부의 인가를 받게 되었고(한국농촌의학회지, 1979), 1983년 회칙개정으로 한국농촌의학회가 되었다. 한국농촌의학회의 설립목적은 법인정관에 명시된 바와같이 비영리 학술법인으로서 우리나라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에 관한 계몽 및 지도와 연구를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한국농촌의학회지, 1988). 한국농촌의학회지는 한국농촌의학회의 주요사업의 하나로 24년간 지속적으로 발간된 학술지로서 우리나라 농촌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논문이 종합된 이 분야 유일의 학술지이다.

21세기가 시작된 200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한국농촌의학회지에 게재된 농촌보건의료에 관한 연구를 종합분석하여 앞으로 보다 진전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일은 실로 의의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학술지의 종합분석은 국내에서 일부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김춘배 등(1999)은 예방의학회지를 중심으로 한 예방의학 연구의 동향과 연관된 논문의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50년간의 예방의학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발표하였으며 하은희 등(1995)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 산업보건관리에 관한 문헌분류 및 연구동향이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21종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산업보건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업보건관리 방향설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홍창기(1995)는 대

한내과학회지의 비교연구논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질향상을 위한 질평가 시도를 하여 내과학 연구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국외문헌의 고찰에 따르면 뉴田泰敏(1989)은 일본공중위생학회에서 1970년부터 1988년까지 18년동안 발표된 논문들의 연구동향을 “日本公衆衛生雜誌”에 발표하였다.

Warren(1981)은 생의학 논문들의 선택에 대해서, Cuddy 등(1983)은 이들 논문들의 평가 방법에 대하여 1980년대 초에 언급하였다. Pocock 등(1987)은 3개 학술지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논문들의 통계적인 방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Fox(1990; 1991)도 “Milbank Quarterly”에 게재된 1977-1990년의 원저를 분석하여 미국 보건관리분야의 연구동향을 Rochon(1994)은 母학술지(parent journal)와 부록(journal supplements)에 게재된 논문들의 질을 비교평가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Neuhauser(1997)와 임정기(1998)는 학회지 자체의 특성에 따라 상호 심의과정시 사독자와 저자간의 연구주제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극복되어야만 양질의 논문이 게재 거부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1976년에 발행된 한국농촌의학회지 창간호부터 1999년말까지 총 34회 발간된 학술지에 게재된 원저논문을 종합분석하여 전체논문편수에 대한 원저논문 비율을 파악하고 사용언어 및 연구비수혜여부와 연대별 저자수 및 연구기관수 분포 추이를 비교하며 게재논문의 연구영역과 연구주제별로 분류하여 분포를 파악하고 연구설계방법과 통계처리방법 등의 변화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진전된 농촌보건의료 관련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키 위해 착수되었다

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선정

농촌의학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1976년 창간호부터 1999년 말까지 총 34회 발행된 농촌의학회지 총 논문은 337편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종설, 증례보고등은 제외하고 원저 총 240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영역 및 연구주제 선정

한국농촌의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원저논문의 연구내용을 분류, 분석하기 위해 먼저 각각의 논문이 분류되어지는 연구영역(대분류) 및 연구주제(소분류)를 정하였다. 한 논문이 한가지 연구주제와 한가지 연구영역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논문 한편 한편에서 한가지 연구주제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최종결정된 240가지 연구주제를 분석하여 3가지 연구영역을 정하였는데, 예방의학 교과서에서 사용한 분류 영역과 국제농촌의학회에서 사용하는 분류 영역을 참조하여 농촌환경 및 농민의 직업성질환, 질병역학, 보건관리 영역으로 결정하였다.

3. 조사변수 및 측정방법

조사단위는 개개의 논문으로서 2명의 연구자가 기 작성된 조사변수가 기록된 평가표 도구를 사용하여 모든 논문을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하였다. 각 항목별 1차와 2차에 걸친 조사시 평가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2명의 다른 연구자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하였다.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주요변수는 각 논문의 발간년도, 저자수와 연구기관수, 사용언어와 연구비수혜현황, 논문주제의 연구영역 및 연구주제, 그리고 연구설계방법과 통계처리방법등이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농촌의학의 연구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표를 부호화 한 후 전산처리하고 SAS로 제표분석, 주요 특성에 따라 그 빈도와 백분율

을 구하여 경향을 분석하였다.

결 과

1. 전체논문수 및 원저논문수

1976년도에 창간된 한국농촌의학회지는 1989년까지는 매년 1회 발간되었으나 1990년부터 1999년까지는 매년 2회 발간되어 1976년부터 1999년까지 총 34호가 발행되었다. 총 34호에 게재된 총 논문수는 337편이었으며 이중 원저논문은 240편으로서 전체 논문의 71.2%에 해당되었다. 창간호와 두 번째 발행된 학회지에는 원저논문이 1-2편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종설논문(review article)이었으나 1978년부터 1990년까지는 원저논문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때에따라 종설논문이 일부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1991년 이후에는 각호의 원저논문비율이 52.6%-85.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종설논문 또는 증례보고 등이 일부 게재되었다. 1991년 이후에 게재된 종설논문의 대부분은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심포지움자료가 주로 게재되었다(표 1).

2. 저자수 및 연구기관수

(1) 저자수별 분포

240편 원저논문의 저자수는 1명에서 최대 10명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중 저자수가 3인인 경우의 논문수가 55편으로 전체의 22.9%로 가장 높았고, 4인인 경우가 20.0%, 2인인 경우가 19.6% 순으로 높았다.

저자수를 연대별로 세분해 보면 1970년대에는 저자수가 1명이 30.8%로 가장 높았고, 1980년대에는 3명이 32.9%, 1990년대에는 2명이 24.7%로 가장 높았으며, 1970년대에는 저자수가 7명이상인 경우는 없었으나 1980년대에는 7명 이상이 1.4%, 1990년대에는 7명 이상이 6.9%로 점차 저자수가 많은 경우가 증가하였다(표 2).

표 1. 한국농촌의학회지 게재 전체논문수 및 원저논문수의 연도별 추이

연도	전체논문수	원저논문수	원저논문비율	발행호수
1976	7	1	14.3	1
1977	10	2	20.0	1
1978	5	5	100.0	1
1979	8	5	62.5	1
1980	9	6	66.7	1
1981	9	8	88.9	1
1982	9	9	100.0	1
1983	9	9	100.0	1
1984	11	10	90.9	1
1985	5	5	100.0	1
1986	5	5	100.0	1
1987	11	11	100.0	1
1988	14	5	35.7	1
1989	5	5	100.0	1
1990	14	14	100.0	2
1991	20	17	85.0	2
1992	18	10	55.6	2
1993	19	12	63.2	2
1994	19	10	52.6	2
1995	21	14	66.7	2
1996	23	15	65.2	2
1997	29	19	65.5	2
1998	27	22	81.5	2
1999	30	21	70.0	2
계	337	240	71.2	34

표 2. 한국농촌의학회지 원저논문의 연대별 저자수 추이

단위 : 편수(%)

저자수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계
1명	4(30.8)	11(15.1)	27(17.5)	42(17.5)
2명	1(7.7)	8(11.0)	38(24.7)	47(19.6)
3명	1(7.7)	24(32.9)	30(19.5)	55(22.9)
4명	3(23.1)	21(28.8)	24(15.6)	48(20.0)
5명	1(7.7)	3(4.1)	15(9.7)	19(7.9)
6명	3(23.1)	3(4.1)	9(5.8)	15(6.3)
7명	-	2(2.7)	6(3.9)	8(3.3)
8명	-	1(1.4)	3(2.0)	4(1.7)
9명	-	-	1(0.4)	1(0.4)
10명	-	-	1(0.6)	1(0.4)
계	13(100.0)	73(100.0)	154(100.0)	240(100.0)

(2) 연구기관수별 분포
원저논문의 연구기관수는 1개에서 최대 5개까지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였으며, 단일기관에 의한 논문수가 106편(44.2%)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기관수가 2개인 경우 논문수는 87편(36.3%), 3개인 경우 논문수는 38편(15.8%) 순으로 높았다. 연대별로 연구기관수별 논문수를 보면 1970년대에는 연구기관수가 1개인 경

표 3. 한국농촌의학회지 원저논문의 연대별 연구기관수 추이

단위 : 편수(%)

연구기관수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계
1	7(53.9)	27(37.0)	72(46.8)	106(44.2)
2	4(30.8)	36(49.3)	47(30.5)	87(36.3)
3	2(15.4)	8(11.0)	28(18.2)	38(15.8)
4	-	1(1.4)	6(4.0)	7(2.9)
5	-	9(1.4)	1(0.7)	2(0.8)
계	13(100.0)	73(100.0)	154(100.0)	240(100.0)

표 4. 한국농촌의학회지 원저논문의 연대별 사용언어 현황

단위 : 편수(%)

연대	한글	영어	계
1970년대	13(100.0)	-	13(100.0)
1980년대	72(98.6)	1(1.4)	73(100.0)
1990년대	149(96.8)	5(3.3)	154(100.0)
계	234(97.5)	6(2.5)	240(100.0)

표 5. 한국농촌의학회지 원저논문의 연대별 연구비 수혜 현황

단위 : 편수(%)

연대	수혜안받음	수혜받음	계
1970년대	13(100.0)	-	13(100.0)
1980년대	73(100.0)	-	73(100.0)
1990년대	130(84.4)	24(15.6)	154(100.0)
계	216(90.0)	24(10.0)	240(100.0)

우가 53.9%로 가장 많으며, 1980년대는 2개인 경우가 49.3%, 1990년대는 1개인 경우가 48.8%로 가장 많았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3개 이상의 연구기관들이 공동연구하여 발표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표 3).

3. 사용언어 및 연구비수혜

(1) 사용언어 현황

원저논문의 사용언어는 전체 논문중 234편(97.5%)이 한글로 기술되었으며 영어논문은 6편(2.5%)이었다. 영어논문은 70년대에는 한편도 없었으나 80년대에 1편(1.4%), 90년대에 5편(3.3%)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4).

(2) 연구비수혜 현황

한국농촌의학회지에 게재된 원저논문에 연구비를 받아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표시된 논문은 24편으로 전체논문의 10.0%이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연구비를 받아 연구되었다는 표시가 전혀 없었으며 1990년~1999년간의 연구 154편중 24편(15.6%)이 연구비를 받았다고 표시되었다(표 5).

4. 연구영역 및 연구주제

(1) 연구영역

한국농촌의학회지의 24년동안에 게재된 원저논문을 대별한 결과 농촌환경 및 농민의 직업성질환에 대한 연구가 39편(16.3%), 질병역학 연구가 96편(40.0%), 보건관리에 관한 연구

가 105편(43.8%)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들 연구영역 구분은 연대별로 1970년대에 게재된 논문은 질병역학 연구 12편(92.3%), 보건관리에 관한 연구가 1편(7.7%)이었으며 농촌환경 및 농민의 직업성질환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1980년대에 게재된 논문은 질병역학 연구가

33편(45.2%)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관리에 관한 연구가 29편(39.7%)이었으며 농촌환경 및 농민의 직업성질환에 관한 연구가 11편(15.1%)이었다. 1990년대에 게재된 논문은 보건관리에 관한 연구가 75편(48.7%)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역학연구 51편(33.1%), 농촌환경

표 6. 한국농촌의학회지 원저논문의 연대별 연구영역별 분포 단위 : 편수(%)

연대	농촌환경 및 농민의 직업성 질환	질병역학	보건관리	계
1970년대	-	12(92.3)	1(7.7)	13(100.0)
1980년대	11(15.1)	33(45.2)	29(39.7)	73(100.0)
1990년대	28(18.2)	51(33.1)	75(48.7)	154(100.0)
계	39(16.3)	96(40.0)	105(43.8)	240(100.0)

표 7. 한국농촌의학회지 게재논문의 연구영역별 연구주제별 분포

영역	주제	게재논문수(%)
농촌환경 및 농민의 직업성 질환	금속 및 화학물질 중독	4(10.3)
	농부증	7(17.9)
	비닐하우스증	7(17.9)
	농약중독	8(20.5)
	사고, 손상 및 기타중독	6(15.4)
	기타(약물장기복용 외 6개)	7(17.9)
	소계	39(100.0)
질병역학	감염성질환	12(12.5)
	비감염성질환	16(16.7)
	기생충	56(58.3)
	기타(농촌주민상병외 11개)	12(12.5)
	소계	96(100.0)
보건관리	국민영양	3(2.9)
	모자보건	13(12.4)
	노인보건	18(17.1)
	정신보건	4(3.8)
	구강보건	2(1.9)
	보건의료체계	23(21.0)
	의료이용행태	25(23.8)
	건강행태(실태)조사	8(7.6)
	건강증진	4(3.8)
	기타(흡연외 4개)	5(4.8)
	소계	105(100.0)

및 농민의 직업성질환에 관한 연구 28편 (18.2%) 순이었다(표 6).

(2) 연구주제

24년동안 한국농촌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연구영역별 연구주제별로 구분하여 분류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농촌환경 및 농민의 직업성질환에 관한 연구 39편중 농약중독에 관한 연구가 8편(20.5%)으로 가장 많았고 농부증, 비닐하우스증에 관한 연구가 각각 7편(17.9%), 사고, 손상 및 기타 중독에 관한 연구가 6편(15.4%) 순이었다. 질병역학 연구 96편중 기생충 관련 연구 56편(58.3%), 비감염성질환 관련 연구 16편(16.7%), 감염성질환 관련연구 12편(12.5%) 순이었다. 보건관리에 관한 연구 105편중 의료이용행태에 대한 연구가 25편(23.8%)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연구 18편(17.1%), 모자보건 관련 연구 13편(12.4%) 순이었다.

24년동안 한국농촌의학회지에 게재된 원저논문의 연대별 다빈도 10순위 연구주제별 분포는 표 8과 같다. 1970년대에 게재된 논문은 기생충에 관한 연구가 6편(46.2%)으로 가장 많았고 비감염성질환에 관한 연구가 4편

(30.8%)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1980년대에 게재된 논문 역시 기생충에 관한 연구가 28편(3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연구가 9편(12.3%)으로 2위를 차지하였고 의료이용행태 관련 연구 7편(9.6%), 모자보건관련연구 5편(6.8%), 농약중독에 대한 연구 4편(5.5%) 순이었다. 1990년대에 게재된 논문 또한 기생충관련 연구가 22편(1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이용행태 관련연구 18편(11.7%), 노인보건에 대한 연구 16편(10.4%),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연구 14편(9.1%), 감염성질환에 대한 연구 10편(6.5%), 비감염성질환에 대한 연구 10편(6.5%) 순이었다.

5. 연구설계방법 및 통계처리방법

(1) 연구설계방법

원저논문에서 사용한 연구설계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24년간 게재된 논문의 연구설계방법별로 분류한 결과 분석적 연구가 115편(47.9%), 기술적연구가 93편(38.8%), 실험적연구가 21편(9.2%), 증례보고 6편(2.5%), 기타 5편(2.1%) 순이었다. 이를 연대별로 보면 70년대에는 논문전체가 기술적연구를 사용하였고, 1980년대에는 기술적연구가 47편

표 8. 한국농촌의학회지 원저논문의 연대별 다빈도 10순위 연구주제별 분포

순 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주제	논문수(%) (N=13)	주제	논문수(%) (N=73)	주제	논문수(%) (N=154)
1	기생충	6(46.2)	기생충	28(38.4)	기생충	22(14.3)
2	비감염성질환	4(30.8)	보건의료체계	9(12.3)	의료이용행태	18(11.7)
3	감염성질환	1(7.7)	의료이용행태	8(9.6)	노인보건	16(10.4)
4	기타(농촌주민상병외)	1(7.7)	모자보건	5(6.8)	보건의료체계	14(9.1)
5	모자보건	1(7.7)	농약중독	4(5.5)	감염성질환	10(6.5)
6	-	-	기타(약물장기복용)	3(4.1)	비감염성질환	10(6.5)
7	-	-	사고 손상 및 기타중독	4(4.1)	기타(농촌주민상병등)	9(5.8)
8	-	-	비감염성질환	2(2.7)	모자보건	7(4.5)
9	-	-	기타(농촌주민상병등)	2(2.7)	건강행태(실태)조사	7(4.5)
10	-	-	국민영양	2(2.7)	농부증 비닐하우스증	6(3.9) 6(3.9)

(64.4%)으로 가장 높았고, 분석적연구가 19편 (26.0%)으로 다음으로 높았다. 1990년대에는 분석적연구가 96편(62.8%)으로 가장 높았고, 기술적연구는 323편 (21.4%)으로 다음으로 높았다(표 9).

(2) 통계처리방법

각 연구수행시 사용된 통계처리방법을 3개 연구영역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3개 영역 모두 기술적 통계분석은 모든 연구에서 시도하였으며 이외에 농촌환경 및 농민의 직업성질환에서는 χ^2 -검정이 15편(38.5%)에서,

t-검정 9편(23.1%), 분산분석 7편(18.0%), 로지스틱회귀분석 7편(18.0%), 상관분석 4편 (10.3%)순으로 사용되었다. 질병역학 연구에서는 기술적통계분석외에 χ^2 -검정이 21편 (21.9%), t-검정 9편(9.4%), 상관분석 6편 (6.3%), 로지스틱회귀분석 5편(5.2%) 순이었다. 보건관리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술적통계 분석외에 χ^2 -검정이 50편(47.6%), t검정 25편 (23.8%), 분산분석 22편(21.0%), 상관분석 15 편(14.3%), 중회귀분석 13편(12.4%), 로지스틱 회귀분석 10편(9.5%) 순이었다.

표 9. 한국농촌의학회지 원저논문의 연대별 연구설계방법 추이 단위 : 편수(%)

연구설계방법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계
기술적연구	13(100.0)	47(64.4)	33(21.4)	93(38.8)
분석적연구	-	19(26.0)	96(62.8)	115(47.9)
실험적연구	-	4(5.5)	17(11.1)	21(9.2)
증례보고	-	2(2.7)	4(2.6)	6(2.5)
기타	-	1(1.4)	4(2.6)	5(2.1)
계	13(100.0)	73(100.0)	154(100.0)	240(100.0)

표 10. 한국농촌의학회지 원저논문의 연구영역별 통계방법별 분포 단위 : 편수(%)

통계방법	농촌환경및농민의 직업성질환	질병역학	보건관리	계
기술적통계량	39(100.0)	96(100.0)	105(100.0)	240(100.0)
t-검정	9(23.1)	9(9.4)	25(23.8)	43(17.9)
분산분석	7(18.0)	3(3.1)	22(21.0)	32(13.3)
χ^2 검정	15(38.5)	21(21.9)	50(47.6)	86(35.8)
상관분석	4(10.3)	6(6.3)	15(14.3)	25(10.4)
중회귀분석	2(5.1)	3(3.1)	13(12.4)	18(7.5)
로지스틱회귀분석	7(18.0)	5(5.2)	10(9.5)	22(9.2)
비모수검정	2(5.1)	-	-	2(0.8)
대응분석	1(2.6)	-	-	1(0.4)
요인분석	-	-	2(1.9)	2(0.8)
paired t-test	-	-	1(1.0)	1(0.4)
공분산분석	-	1(1.0)	1(1.0)	2(0.8)
경로분석	-	-	2(1.9)	2(0.8)
기타 -	-	6(6.3)	3(2.9)	9(3.8)

* 중복계산허용

고 찰

농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농촌의학 연구는 실로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한국농촌의학회가 탄생된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농촌에 국민의 51.6%가 거주하고 있었으며(남철현 등, 1984), 당시의 농촌에는 새마을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한편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져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이농현상이 시작된 시기이다.

지난 25년간 우리나라 농촌은 실로 큰 변화가 이루어져 오늘날은 전국민의 21.5%에 해당하는 인구만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통계청, 1999), 전국의 농촌사회가 공히 노령화 현상이 두드러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 농촌 인구의 특성중의 하나는 농촌경제구조의 악화로 농업노동을 담당해야할 생산 연령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나타난 노령인구의 증가로 이는 인구특성상 의료에 대한 요구수준을 높이는 결과가 되고 있으며 더욱이 부족한 노동력으로 인해 행해지는 과도한 노동은 농촌주민의 건강수준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의 질병양상은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상의 제 문제가 반영되어 특이한 양상을 나타내며 적절한 치료의 부재는 만성병의 비율을 높이고 농업 노동에 따른 근육 및 근골격계 질환과 이에 따른 건강장애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오늘날의 한국 농촌은 의료인력 및 시설의 심한 도시지역 편재로 인한 의료자원의 부족과 의료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의 저하 및 전반적인 낮은 소득수준에서 오는 경제적 장벽들로 인하여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한 농민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의 저하는 농업노동의 육체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필연적으로 농업생산력의 저하를 가져오고 이는 농민의 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이정에, 1995)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곳으로서의 농촌, 농촌주민의 건강이야말로 국가적으로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농촌의학의 발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농촌의학 연구를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를 종합분석함으로써 농촌의학연구를 계획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가 있다.

우리나라 농촌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를 종합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모든 전문 학술지를 검색하여 농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농민의 보건의료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논문을 검색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농촌의학회지에 게재된 원저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논문을 검색하는 것은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를 분석하는 것이 과연 농촌 보건의료 문제와 관련되고 앞으로 농촌 보건의료 관련 연구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필요한지 통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농촌 보건의료에 관련된 연구결과를 중점적으로 파악키 위해 농촌의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고 판단되는 한국농촌의학회지(1종류)만을 분석함으로써 한국농촌의학회지를 주로 이용하는 연구자들에게 알맞은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976년에 창간된 한국농촌의학회지 창간호와 익년도에 발간된 제2호는 당시 국제농촌의학회 한국지부회가 주관하여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심포지움 연제가 주로 게재되어 연제집의 성격을 이루었다. 그러나 창간호와 2권에도 원저논문이 1~2편 포함되고 있었으며 3권부터는 원저논문을 중심으로 편집되었다. 초창기 한국농촌의학회 학술대회는 제1회는 마산에서 제2회는 경북 의성군 봉양면에 소재하는 제남농촌의료원에서 제3회는 전북 옥구

군 개정면에 소재하는 한국농촌위생원에서 개최되어 농촌의료 현장에서 개최되었으나 농촌의료에 관심을 가진 보건의료인이 거의 200여 명씩 참가할 정도로 열성이 있었다(한국농촌의학회지, 1988). 이러한 이유는 1970년대 당시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51.6%가 농촌에 거주하였으나 농촌 보건의료 현실이 매우 빈약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보건의료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인사들이 단합하여 농촌의학 연구와 학술교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농촌의학회의 전신인 국제농촌의학회 한국지부회를 적극 육성하였기 때문이다.

1978년에 발간된 3호부터 1990년에 발간된 15권까지는 한국농촌의학회지에 원저논문이 주종을 이루었고 일부 종설논문등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농촌의학의 발전은 대학에서 연구하는 학자와 농촌보건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이 적극적인 협동을 통해 때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의학회지가 너무 학술적일 때는 일선 보건의료인들은 외면할 수도 있을 것이며 너무 현장경험 사례발표나 종설논문 중심으로 될 때는 홍보교육지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이나 일선 보건의료인이 모두 참여하여 원저논문과 종설, 사례보고등을 적절히 조합할 때가 이상적이라 할 것이다. 1991년 이후 발간된 제16권부터 제24권까지는 한국농촌의학회지도 년2회씩 발간되고 원저논문 비율도 55.6%~85.0%를 차지하여 학술 심포지움 자료등이 적절히 배합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원저논문만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원저논문의 저자수와 연구기관수를 연대별로 비교한 결과 1970년대는 저자수 평균 3.4±2.0 인 연구기관수 평균 1.6±0.8 기관이고 1980년대는 저자수 평균 3.3±1.5인 연구기관수 평균 1.8±0.8 기관이었으며 1990년대는 저자수 평균 3.3±1.9인 연구기관수 평균 1.8±0.9 기관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저

자수와 연구기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의 주된 요인이 대학에 종사하는자와 일선 보건의료인의 협동연구를 반영하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한국농촌의학회지의 원저논문을 크게 분류한 연구영역은 연구자와 지도교수의 몇차례의 논의를 거쳐 농촌환경 및 농민의 직업성질환에 관한 연구, 질병역학 연구, 보건관리에 대한 연구 이상 3개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김춘배 등(1999)은 예방의학회지를 중심으로 한 예방의학 연구동향 분석에서 환경 및 산업보건, 역학, 보건관리 이상 3개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하은희 등(1995)은 해방이후 우리나라 산업보건관리에 관한 문헌분류 및 연구동향 분석에서 산업보건관리 영역을 산업보건 자원체계, 산업보건 조직체계, 산업보건 서비스전달체계, 산업보건 재원조달체계, 산업보건 관리운영체계 이상 6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산업보건 영역중 산업보건 사업은 보건관리, 작업환경관리 및 질병관리 3개분야로 대별하였다.

따라서 농촌의학 연구 분류도 본 연구 결과처럼 세가지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보건관리 영역의 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추후 이를 세분화 할 것 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논문 제목 또는 핵심단어(key word)를 참고하여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 농촌환경 및 농민의 직업성질환 연구는 농부증, 농약중독등 6개 주제로 분류되었으며 질병역학 연구는 기생충, 감염성질환, 비감염성질환등 4개 주제로 분류되었다. 보건관리에 대한 연구는 국민영양, 모자보건, 노인보건, 의료이용행태등 10개 주제로 분류되어 총 20개 주제로 분류되었다. 연대별 주제별 분포를 관찰한 결과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공히 질병역학 연구중 기생충을 주제로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기생

충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할 수도 있으나 1990년대에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므로 앞으로 다른 연구에 비해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생충을 주제로한 연구에 뒤따라 1970년대는 비감염성질환에 대한 연구가 2위를 차지하였으며, 1980년대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연구가 2위, 의료이용행태에 관한 연구가 3위를 차지하였으며, 1990년대는 의료이용행태에 관한 연구가 2위, 노인보건에 관한 연구가 3위를 차지한 것은 우리나라 농촌보건 의료문제가 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할 수 있다.

요 약

한국농촌의학회지 창간호(1976년 발행)부터 24권2호(1999년 발행)까지 총 3호에게제된 연구논문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총 34호에 게재된 전체논문수는 337편이었고 이중 원저논문수는 240편(71.2%)이었다. 원저논문은 1970년대에 13편, 1980년대에 73편, 1990년대에 154편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2. 원저논문 240편의 저자수는 1명에서 10명까지였고 3인인 경우가 55편(22.9%)으로 가장 높았다. 공동저자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연구기관수는 1개에서 5개까지였고 단일기관인 경우가 106편(44.2%)으로 가장 높았다. 1990년대에 오면서 3개이상의 연구기관들이 공동연구하는 양상을 뚜렷이 나타냈다.
3. 게재논문의 사용언어는 97.5%가 한글로 기술되었으며, 영어논문은 2.5%이었다. 원저논문에 연구비를 받았다고 표시된 논문은 24편(10.0%)이었다.
4. 원저논문의 연구영역별 분류에 의하면 보건관리에 관한 논문이 105편(43.8%), 질병역학 연구논문이 96편(40.0%), 농촌환경 및 농민

의 직업성 질환분야는 39편(16.3%)으로 순이었다. 1970년대에는 질병역학 12편(92.3%), 보건관리 1편(7.7%)이었다. 1980년대에는 질병역학 33편(45.2%), 보건관리 29편(39.7%), 농촌환경 및 농민의 직업성질환 11편(15.1%)이었다. 1990년대에는 보건관리 75편(48.7%)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역학 51편(33.1%), 농촌환경 및 농민의 직업성질환 28편(18.2%) 순이었다.

5. 각 영역별 연구주제별 분류에 의하면 농촌환경 및 농민의 직업성질환 논문 39편중 농약중독 8편(20.5%)으로 가장 많았고 농부증, 비닐하우스증에 관한 논문은 각각 7편(17.9%), 사고손상 및 기타중독 6편(15.4%) 순이었다. 질병역학 논문 96편중 기생충 56편(58.3%)으로 가장 많았고, 비감염성질환 16편(16.7%), 감염성질환 12편(12.5%) 순이었다. 보건관리 논문 105편중 의료이용행태 25편(23.8%)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의료체계 18편(17.1%), 모자보건 13편(12.4%) 순이었다. 연대별 다빈도 10순위 연구주제별 분포에 의하면 1970년대에는 기생충 6편(46.2%), 비감염성질환 4편(30.8%) 순이었다. 1980년대에는 기생충 28편(38.4%)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의료체계 9편(12.3%), 의료이용행태 7편(9.6%), 모자보건 5편(6.8%), 농약중독 4편(5.5%) 순이었다. 1990년대에는 기생충 22편(14.3%), 의료이용행태 18편(11.7%), 노인보건 16편(10.4%), 보건의료체계 14편(9.1%), 감염성질환 10편(6.5%), 비감염성질환 10편(6.5%) 순이었다.
6. 원저논문의 연구설계방법은 분석적연구 115편(47.9%), 기술적연구 92편(38.3%), 실험적연구 21편(9.2%), 증례보고 6편(2.5%) 순이었다. 1970년대에는 기술적연구 13편(100%)이고, 1980년대에는 기술적연구 47편(64.4%), 분석적연구 19편(26.0%)이었으며,

1990년대에는 분석적연구 96편(62.8%), 기술적연구 32편(20.9%)으로 나타났다. 통계처리방법으로는 3개 연구영역 모두 기술적통계량을 모든 논문에 시도하였고, χ^2 -검정, t-검정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한국농촌의학회지에 원저논문의 게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저자수 및 연구기관수도 1990년대에 들어 증가하여 농촌의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가 계속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영역을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았는데 1970, 1980년대에 질병역학 논문이 가장 많았지만 1990년대에 와서 보건관리 논문이 급증한데 기인한다. 연구주제별 분석결과 1970, 1980, 1990년대 공히 질병역학 영역에 속한 기생충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아서 그동안 우리나라 농촌에 기생충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앞으로 의료이용행태, 노인보건 등 보건관리에 관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인용문헌

1. 김춘배, 이정애, 박종구, 손석준. 예방의학회지를 중심으로 한 예방의학연구의 동향과 연관된 논문의 질적 메타분석. 대한예방의학회지 1999;32(2):113-120
2. 남철현, 김혜련, 송현주, 서미경. 인구보건지표 및 통계.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4, 쪽 12
3. 이정애. 농어촌 주민의 건강수준 현황과 건강증진 방안. 한국농촌의학회지 1995;20(2):211-234
4. 임정기. 게재거부된 논문의 특징. 학술논문심사에 관한 panel 토의연계집,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1998
5.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제46권. 1999, 쪽 39
6. 하은희, 박혜숙, 김영복, 송현종. 해방이후 우리나라 산업보건관리에 관한 문헌분류 및 연구동향. 대한예방의학회지 1995;28(4):809-844
7. 한국농촌의학회지. 제1권. 1976, 54 쪽
8. 한국농촌의학회지. 제4권. 1979, 109 쪽
9. 한국농촌의학회지. 제13권. 1988, 130 쪽
10. 홍창기. 질 향상을 위한 질 평가 시도 : 대한내과학회지의 비교연구 논문에 대한 연구. 대한내과학회지 1995;47(suppl II):6-22
11. Cuddy PG, Elenbaas RM, Elenbass JK. Evaluating the medical literature: Part I. Abstract, introduction, methods. Ann Emerg Med 1983;12:549-55
12. Fox DM. Health policy and the politics of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J Health Politics, Policy and Law 1990;15(3):481-499
13. Fox DM. The Milbank Quarterly and health services research, 1977-1990. Milbank Quarterly 1991;69(2):185-197
14. Neuhauser D. Peer review and the research commons : a problem of success. Med Care 1997;35(4):301-302
15. Pocock SJ, Hughers MD, Lee RJ. Statistical problems in the reporting of clinical trials : a survey of three medical journals. N Eng J Med 1987;317:426-432
16. Rochon PA, Gurwitz JH, Cheung CM, Hayes JA, Chalmers TC. Evaluating the quality of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 supplements compared with the quality of those published in the parent journal. JAMA 1994;272(2):108-113
17. Warren KS. Selective aspects of the biomedical literature. In: Warren KS ed.

Coping with the Biomedical Literature :
A Primer for the Scientist and Clinicia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1, pp.
17-30

18. 杵田泰敏 安西 定. 日本公衆衛生學會から
みた公衆衛生研究の動向(1970-1988年). 日
本公衛誌 1989;5:324-331